

2024년 아산장학생 518명 선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뒷줄 일곱번째)과 이사 등이 아산장학생들과 함께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월 27일 서울아산병원 내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24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산재단은 이날 대학생 431명, 대학원생 87명 총 518명에게 장학금 38억원을 전달했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은 국내 46명, 해외 31명 등 총 77명으로 확대되어 졸업 시까지 매년 2,000~4,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의료정책분야 대학원 장학생 10명에게는 졸업 시까지 매년 1,000만원이 지원된다.

대학교 장학생에는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과 산업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지역산학협력 장학생' 100명, '북한이탈 청소년 장학생' 5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의생명과학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생명

과학분야 대학교 장학생' 제도를 신설해 37명을 선발했다. 북한이탈청소년과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생에게는 연 600만원의 학업보조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선친께서 47년 전인 1977년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제일 먼저 하신 사업 중 하나가 장학사업으로 어려운 형편의 젊은이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셨다”며 “아산재단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학생 여러분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을 해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아산재단은 1977년 재단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 7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87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글 편집부